

“설마 내 아이가 실종되었어?” 지문 사전등록제 가입률 저조

#1. 지난달 1일 오전 8시께 112에 한 통의 신고전화기 접수됐다. 광주 모 초등학교에서 길을 잃은 지적장애 청소년 A(10)양을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A양을 만나 신원파악을 하려했지만 A 양은 지적장애 1급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아이와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아동지문 사전등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지문과 사진을 입력해도 A 양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 전산망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사전등록제'에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초등학교 등을 탐문한 끝에 A양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아동과 장애인 등의 실종 신고는 줄었지만 미발견자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경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다.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자녀와 함께 가서 하면 되는데, 의무가 아니라서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된다. 보호자를 잃은 아동이 발견됐을 경우 이 아동의 지문을 채취해 경찰 정보망에 입력하면 사전등록된 아동들 가운데 일치하는 정보를 가진 아동이 검색되기 때문에 보호자를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계를 내보니, 실종된 아이를 발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86시간 36분이었는데, 사전등록을 한 아동의 경우에는 발견까지 걸린 시간이 24분에 불과했다. 문제는 사전등록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18세 미만 전체 아동 가운데 사전등록



경찰이 지난 2012년부터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제를 도입. 운영 중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부모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등록률이 저조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 중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지역 아동·장애인 실종신고 줄었지만 미발견 증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한 부모들 가입 꺼려 활용도 낮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년 전부터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제를 도입, 운영 중이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부모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등록률이 저조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실종신고 건수는 2012년 1282건, 지난해 985건에 이어 올해 4월 30일 현재 282건으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한 아동 등은 2012년 2명에서 지난해 4명, 올해 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실종 아동의 기준 연령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됐고 치매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실종 아동 등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문 사전등록제를 운용해 현재까지 광주에서만 7만3533명의 지문을 등록했다.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이다.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보호자의 연락처와 합

을 한 경우는 19% 정도이고, 특히 이 제도가 유용한 10세 미만 아동의 사전등록률도 36%에 불과하다.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모르고 있는 부모가 많은데다 '설마 내 아이가'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게 낮은 등록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 경찰서나 파출소에 직접 가기 어렵거나 지문 같은 신상정보 유출이 우려돼 사전등록을 꺼리는 경우라면 우리아이 지갑이 키트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키트 안에는 아이의 지문과 유전정보를 채취해 보관하는 도구가 담겨 있는데, 평소에는 부모가 이 키트를 보관하다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경찰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한국야구위원회의 지원으로 일부 야구경기장에서 경기 시작 전에 나눠주기도 하지만, 나눠주는 시기가 일정치 않고 수량도 충분치 않아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운 게 단점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사전등록제를 권장하면서 등록률이 높아졌

다”면서 “그러나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각각 가정 등 곳곳에 흩어져 있고, 경찰 홍보인력 부족으로 실종신고대 발견할때마다 등록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는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 사전등록제를 권유하는 등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홍역 유행 조짐 ‘예방접종 시급’

보건부 “환자수 작년 두배”
학교 중심 집단감염 가능성

열과 발진을 동반하는 홍역이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유행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총 225명으로, 이미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홍역 환자 인원(107명)의 두배를 넘었다.

복지부 측은 홍역이 대유행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방문자들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이들이 병원과 학교 등을 드나들면서 2차 감염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홍역 환자와 같은 병

원에 방문했던 예방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영유아가 주로 감염됐다”며 “접종률이 있더라도 1%미만에서 증상이 발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역 환자의 경우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아 발병 후에도 학교에 지속적으로 등교하며 동일 집단내 2차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홍역 진단을 받은 경우 학교·학원에 가는 것을 막고 집이나 병원 등에서 격리 치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고등학생 중 홍역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화마로 집 소실 “이웃들 있어 힘나요”

계림동 주민위·방재단·통장단
화재 피해 주민 등 3가구 지원

화마로 집을 잃은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잇따라 훈훈함을 주고 있다.

26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계림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 통장단 등은 지난 22일 정중현(67)씨 등 세 가구에게 화마로 집을 잃은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잇따라 훈훈함을 주고 있다.

26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계림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 통장단 등은 지난 22일 정중현(67)씨 등 세 가구에게 화마로 집을 잃은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잇따라 훈훈함을 주고 있다.

26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계림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 통장단 등은 지난 22일 정중현(67)씨 등 세 가구에게 화마로 집을 잃은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잇따라 훈훈함을 주고 있다.

년 뒤 20분 만에 꺼졌었다.

이웃 주민들의 온정도 잇따르고 있다. 주민 선종철(56)씨는 정씨의 집이 불이 나면서 탄 전기 배선을 무료로 교체해준 뒤 새 옷을 제공해 줬다. 구는 정씨의 집을 포함한 나머지 두 세대에 대해 위기가정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해태보상금과 함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줬다.

피해주민 정씨는 “화재로 살림이 막막했는데, 이웃 주민은 물론 구에서 도움을 줘 살림이 열렸다”며 “이웃 주민들 생각해서라도 애전보다 더 열심히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비상시 ‘도와 종’ 누르세요

북구 공중화장실 5곳에 설치
경광등 울리고 경찰·소방 연결

광주시 북구가 최근 지역에 마련된 공중화장실 안에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비상벨인 ‘도와 종(鐘)’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지난 22일 지역 내 공중화장실 중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 5곳에 비상벨 30개와 경광등 5개를 설치했다.

이번에 ‘도와 종’이 설치된 장소는 무등경기장 앞 공중화장실, 문화근린공원(하) 공중화장실, 우산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2곳), 양산호수공원 공중화장실 등이다.

‘도와 종’은 사용자가 화장실 안에서 범

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응급상황 발생시 이를 외부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비상벨을 누르면 건물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울리고 공원관리자나 외부 이용자가 비상상황을 경찰서나 소방서에 알리는 시스템이다.

구는 공중화장실에 ‘도와 종’을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도와 종’ 설치가 확대되면 범죄 예방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국현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도와 종 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범죄 및 응급상황 등 주민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개선 사항을 점검한 후 후속연구가 많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대한민국 최저가 LTE 기본료

LTE29 요금제 출시

휴대폰은 최신 LTE 폰으로! 통신비는 국내 최저가 LTE 요금제로!

추천요금제

기본료 (VAT포함)
29,000원 (31,900원)

음성통화	문자	데이터	약정할인
60분	200건	500MB	6,000원 (6,600원)

최신단말기

Samsung GALAXY S5



삼성 갤럭시 S5

LG G Pro2



LG G Pro2

VEGA 시크릿UP



베가 시크릿업

100% 가입 선물

티빙 실시간 TV 무제한 1년 이용권 100% 증정 (~2014.12.31 이전 가입고객 대상)

*“실시간 TV 무제한 이용권”은 모바일+PC+태블릿에서 180개 TV 채널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티빙의 상품입니다.

꽃보다 CJ알뜰폰

대한민국 1등 알뜰폰 헬로모바일 www.cjhello.com

가입문의 1855-4949